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의 자비하심 /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다같이
대표기도		양병덕
*성경봉독	벧후1:3-10	양승욱
말씀	제자의 삶 3 - 자기 정체성이 확고히 뿌리내린 삶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제자의 삶 3 – 자기 정체성이 확고히 뿌리내린 삶 (벧후1:3–10)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971년에 스탠퍼드대 교후 필립 짐바르도는 24명의 건강한 대학생을 뽑아, 그 중 일부는 교도관 역할을 다른 일부는 수감자 역할을 하게 하는 교도소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놀랍게도 불과 3일만에 양쪽은 완전히 자기가 맡은 역할의 심리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워낙 파급효과가 커서 영화로도 개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은 아직 예수의 제자 답게 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다른 한 요소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부르심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서신서를 기반으로 그가 정말로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란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과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시면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허물이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제한적 사랑과 달라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눌수록 더 커지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세상적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입니다. (롬5:8, 요3:16, 롬8:35) 연인관계에서도 이처럼 명백한 사랑고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의심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내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연애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인 제 여자친구에게 "넌 내꺼야" 라고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이 십년은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존재가 내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감격스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43:1)

제자는 내 삶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삶의 많은 것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 희망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도, 내가 겪는 힘든 상황도, 관계적 어려움도, 내 삶의 목표도 다 수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도 제자로 살게 됩니다.

세번째 제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맡기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엡1:11, 고전3:9)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채명신 장군 예, 사도 바울의 예) 그 일 잘 감당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갖춰야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와 함께 왕노릇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에 대해 왕노릇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1:28)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가자 그 권한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눅4:5-6)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권세가 예수님과 교회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28:18, 마16:19)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딤후2:12, 엡2:6)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산책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계기로 제자 답게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평생에 걸쳐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외에도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찬미를 보냅니다.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는 지금껏 살펴본 네 가지 정체성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정립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여러분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2. 오늘 네 가지 정체성을 나눴습니다: 사랑받는 존재, 주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 왕노릇하는 자이 중 내 스스로 가장 약한 정체성과 비교적 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3.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방법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자료실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광고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청 QR

"찬양의 밤" 행사 알림
- 10/27(금) 7:30pm, 청년부 예배실
- 찬양팀과 회중이 하나되는 포맷으로 모여 찬양, 기도, 말씀듣는 예배 시간
- 예배 후에는 캠프파이어 시간 계획 중
- 할로윈을 맞아 우리의 영을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Bridge" UT 캠퍼스 사역
- 매주 목 11:30-1:30, SSB G1.106 (맛있는 점심 제공)
- AKPC 청년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교회, 비기독교인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UT 선임 연구원 백인엽 안수집사님께서 신앙간증 및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세례/입교, 유아세례
- 11월 12일(주일) 2부 예배시간
- 신청 :11월 1일(수) 까지
- 교육/문답 : 11월 4일(토) 오후 2시/11월 11일 (토) 오후 2시
- 주님을 영접하는 공식적 고백이 되는 세례와 유아세례자의 개인 신앙고백인 입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Just Show Up 성경읽기
- 매주 화 저녁 8시 (줌)으로 진행중
- 지금이라도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연락: 조학영, 안혜성)

2023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접수 마감/10월 22일(주일)
접수 및 문의: 교회 홈페이지(akpc.org)/장학위원회(akpc.scholarship@gmail.com)
지정헌금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Arise 특별 간증 집회
- 11월 4일 (토) 오후 6시, 본당
- 강사 : 이은상 선교사 (11월 5일 청년 주일 예배에서도 이은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Fall Festival (교회 전체행사)
- 10월 28일 (토) 오후 5시~8시
-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 AKPC 가을 축제"
- 즐거운 게임, 바운스 하우스, 맛있는 먹거리 등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51권 44호
10
22
23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512 454 1727
FAX 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PSALM AKPC
INSTAGRAM | @PSALM_AKPC

AKPC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